신안, 아동·청소년 복지 '눈에 띄네'

드림스타트, 3D펜아트 교실·학습지 등 맞춤형 지원
청소년상담센터, 상담·청소년전화·위기예방교육 등

신안군이 미래 지역 발전을 이끌 아동·청소년들의 차별 없는 복지 제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취약 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발전을 도모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아동·청소년 복지를 선도하고 있다.

20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코로나19의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준수하고 1004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양질의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신안군 드림스타트는 전담 공무원 2명과 아동통합사례관리사 4명이 지역 230여명의 아동들을 돌보며 관리하고 있다.

올해 안좌초등학교 아동 8명을 대상으로 3D펜아트교실을 운영해 인지, 언어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매월 드림스타트 아동 47명에게 웅진씽크빅, 재능교육과 협약해 학습지를 지원하고 있다. 또 지역의 11개 이·미용실과 협약을 맺고 344명의 아동과 보호자에게 이·미용 쿠폰을 지원하는 한편 안경맞춤, 치과검진 및 치료, 심리치료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아동청소년안전교육협회에 위탁해 압해동초 외 15개교 400여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심폐소생교육 시간도 가졌다.

신안군은 전담 공무원 2명과 팀원 3명, 행정원 1명으로 청소년상담센터를 구성하고 지역 내 청소년 2,000여명에게도 정성을 쏟고 있다.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기관 구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과 잇따라 업무협약을 갖고 집중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개인과 집단 상담, 심리검사, 청소년전화1388 운영을 통한 심리상담지원, 찾아가는 위기예방교육,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 교육과 또래 상담교육 등의 운영을 통한 집단교육지원, 사례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거리상담, 캠페인활동 등 위기긴급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송현중 드림스타트 담당은 "민간협력을 통한 위기청소년 조기발굴을 위해 1388청소년지원단 교육과 찾아가는 거리상담 및 홍보활동을 위해 현수막 및 배너 설치, 리플렛 및 홍보물품을 제작·배포를 통해 센터사업을 안내하고 있다"며 "지역 청소년들의 정책 제안과 활발한 활동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군은 학교 밖 약 10여명의 청소년들과 대면상담 31회와 전화상담 51회, 모바일상담 79회 등을 갖고 검정고시 학습을 위한 EBS 인터넷강의 및 교재 지원, 1대1학습지도 등 진학 지원도 함께 실시했다.

박우량 군수는 "신안군은 군민 모두가 동등한 양질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과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아동들의 자존감을 살리고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안=이주열 기자

신안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준수하며 1004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양질의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무안군의회 추경 7,072억원 확정

무안형 재난지원금 83억 포함…청년발전 조례 개정 등 22건 처리

무안군의회는 최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무안군 청년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9건, 일반안건 2건 등 모두 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총 19건의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4건으로 ▲무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립 무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었으며 모두 원안 가결됐다.

코로나19 무안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요 골자로 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군의회는 지난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원중 의원)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로써 최종 확정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65억6,039만7,000원(7.05%)이 증가한 7,072억6,715만1,000원이다.

김대현 무안군의회 의장은 "연이은 태풍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등으로 군민들의 시름이 깊다"며 "집행부에서는 군민들이 정책 효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안=박주현 기자

해남 전 군민에 마스크 준다

1인 5매씩 추석 전 우편발송

코로나19의 확산속에서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해남군이 전 군민에게 마스크를 배부한다.

20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코로나19 관련 확진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은 지역으로, 추석명절을 앞두고 군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체 군민에게 마스크를 전달하기로 했다.

배부되는 마스크는 KF94 등급으로 군민 1인에게 5매를 배부하며, 추석 전 우편으로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남군은 35만개의 마스크를 확보하고 각 가정별 분류 작업 등을 거쳐 배부할 계획으로, 안전한 명절나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명현관 군수는 "코로나 전염을 막는 최고의 방법은 마스크 착용으로, 모든 군민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마스크를 배부하기로 했다"며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군민 건강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8월 21일자로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10월 13일부터는 과태료 부과 등 미착용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남=박병태 기자

해남군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군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체 군민에게 마스크를 전달하기로 했다. /해남군 제공

노연택 바르게살기운동 목포시협의회장

소외계층 봉사 공로 '시민의 상'

2020년 목포시 시민의 상 수상자가 확정됐다.

20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시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공개모집한 시민의 상 후보자에 대해 최근 목포시 시민의 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봉사 부문에 노연택바르게살기운동목포시협의회장(사진), 특별상 부문에 목포농업협동조합을 2020년 목포시 시민의 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노연택 회장은 연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및 명예동장 등으로 활동하며 집수리 사업, 밥차 봉사 등 소외계층을 위한 지역사회 봉사에 앞장서 참여했다. 또 2015년부터 바르게살기운동 목포시협의회장으로 활동하며 방역활동, 교통질서 캠페인, 환경정화참여 등 봉사활동과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을 위한 기부 등 한결같은 태도로 나눔을 실천해 심사위원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목포농업협동조합은 목포4대 관광거점도시 및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맞춰 전국 1,000여개 농협 및 관련단체에 목포시 방문 홍보로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했고, 거동불편 노인대상 보행기 지원, 시민들을 위한 건강강좌 개최, 농번기 지역농가 봉사활동으로 시민 편익 증진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목포=박승경 기자

신안 '명품 시금치' 특화작목 경쟁력 강화

신안군이 '명품 시금치'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꾀하기 위해 시금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20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전남도 1시·군 1특화 작목 육성사업에 선정돼 오는 2022년까지 시금치 경쟁력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다.

신안군은 시범사업을 통해 기존의 시금치 재배 방식을 일괄적으로 기계화하고 생력 재배법으로 전환해 안정생산 단지 조성과 APC 소포장시설을 보완할 계획이다.

신안군농업기술센터는 재배기술 확대 보급을 위해 농기계 사용 교육과 현장 연시회를 추진하고 '시금치 생력재배 및 일관기계화'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는 등 비대면 농가 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신안 이주열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청자골옴천토하젓, 토하젓 100개 지정 기탁

강진청자골옴천토하젓 김동신 대표가 최근 강진군에 토하젓 500g 100개를 전달해 행복한 강진 만들기에 앞장섰다.

기탁된 옴천토하젓은 약 500만 원 상당으로 각 읍·면 저소득층 어려운 이웃 100가구에 전달됐다.

김동신 대표는 "코로나19로 야외활동도 힘들고 올해 추석은 귀경 움직임도 제한하고 있어 작지만 따뜻한 명절을 나시기 기원하며 힘을 보탠다"며 "나눔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코로나19로 더욱 쓸쓸해질 명절을 보내게 될 어려운 이웃에게 이 같은 따뜻한 이웃사랑의 마음은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진도 부동산 소유권 특조법 전담 창구 운영

진도군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부동산특조법 T/F팀 창구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으로 지난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신청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하면 조사 후 2개월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 받아 진도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통해 실소유자가 등기함으로써 많은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도=박병호 기자

목포시치과의사회, 코로나19 극복 성금 기탁

목포시치과의사회는 최근 코로나19 위기극복 성금 1,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목포시에 지정기탁했다.

이경택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소속 회원들과 함께 작지만 정성을 모았으니 도움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치과의사회는 본연의 자리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시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시는 이번 기탁금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방역 물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목포=박승경 기자